아트앤스터디 <오페라에 중독되다>

⑥ 19세기 후반: 프랑스와 러시아의 오페라

1. 프랑스 오페라: 색채감과 관능미

1) 샤를 구노, 〈파우스트Faust〉

작곡 : 샤를 구노(Charles Gounod, 1818-1893)
원작 : 요한 볼프강 폰 괴테(1749-1832)의 <파우스트> 및 미셸 카레의 <파우스트와 마르그리트>
대본 : 쥘 바르비에/미셸 카레
초연 : 1859년 3월 19일 파리 테아트르 리리크 극장
배경 : 16세기 독일

<주요 등장인물>
파우스트(Faust) : 철학자(테너)
마르그리트(Marguerite) : 순진한 처녀(소프라노)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 : 악마(베이스)
발랑탱(Valentin) : 군인. 마르그리트의 오빠(바리톤)
시에벨(Siebel) : 발랑탱의 친구(메조소프라노)
마르트(Marthe) : 마르그리트의 동네 아주머니(소프라노)
바그너(Wagner) : 대학생. 발랑탱의 친구(바리톤)
<감상 포인트>
* 샤를 구노 : 아버지는 화가, 어머니는 뛰어난 피아니스트여서 어릴 때부터 예술적 분위기 속에서 성장. 가정에서 일찍부터 음악 교육을 받았다. 18세에 파리음악원에 입학. 작곡의 비중을 초기에는 교회음악에 두었다. 1839년 로마대상을 받아 로마에 유학하면서 팔레스트리나의 교회음악에 큰 영향을 받아 성직자가 될 생각을 굳히기도 했고, 멘델스존의 누이 파니와 교유하며 독일 교회음악의 영향도 많이 받았다. 그러나 프랑스로 돌아온 뒤 구노는 주로 오페라 작곡에 힘썼고, <파우스트> 공연이 성공하면서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로 인정받게 되었다. <사포>(1851), <파우스트>(1859), <필레몬과 바우키스>(1860), <시바의 여왕>(1862), <미레유>(1864), <로미오와 줄리엣>(1867) 등이 그의 대표작이다.
* 파우스트 전설과 괴테의 <파우스트> : 1480-1540년 무렵에 생존했던 실존인물이 파우스트의 모델(Georg Faust). 비텐베르크, 에어푸르트 대학 등지에서 의학, 천문학, 연금술을 공부했고 의사로 활동했으며, 악마와 계약을 맺어 지옥에 떨어졌다고 전한다.
괴테 이전, 1587년 독일 슈피스 판 <파우스트>에서 주인공은 원소를 획득하기 위해 영혼을 팔고 독수리 날개를 달려고 노력한다. 그의 동인(動因)은 향락이 아니라 '인식에 대한 갈망'이다. 작가는 주인공의 파멸을 통해 신을 잃은 인간들에게 경종을 울리여 했다.

1593년 영국 말로 판 <파우스트 박사의 비극적 이야기>에서는 현세를 뛰어넘어 신이 되려는 주인공을 보여준다.
괴테의 <파우스트>(1774-1808)는 1/2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구노가 오페라에 채택한 부분은 <파우스트>의 1부 '그레트헨의 비극'에 해당한다. 1부는 1808년에 출간되었으나 괴테는 이 작품을 죽을 때까지 계속 수정했다. 1부는 학문에 대한 회의, 사랑의 기쁨과 죄. 2부는 고전적 미의 이상과 '노력하는 인간'이 주제가 된다. 노년의 괴테는 행위자로서의 파우스트와 그의 인류애를 묘사하는 데 열정을 기울였다.
* 음악적 특성 : 독일 교회음악의 장중함 + 이탈리아 선율의 유연함 + 프랑스적 관능미

<감상곡과 영상물>
* 파우스트의 아리아 'Salut! demeure chaste et pure'(정결한 집이여)
* 마르그리트의 아리아(보석의 노래) 'Un bouquet!...O Dieu! Que de bijoux!'(웬 꽃다발?)
* 병사들의 합창 'Gloire immortelle de nos aieux'(우리 선조들의 불멸의 영광)
(DVD) 안젤라 게오르규/로베르토 알라냐/브린 터펠 등,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 런던 코벤트가든 로열오페라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데이비드 맥비카 연출, 로열오페라하우스 실황, 2004년(한글자막)

2) 조르주 비제, 〈카르멘Carmen〉

작곡 :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1838-1875)
원작 : 프로스페르 메리메의 소설 <카르멘>(1845년)
대본 : 앙리 메이야크/뤼도비크 알레비(프랑스어)
초연 : 1875년 3월 3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
배경 : 1820년경 스페인 세비야
<주요 등장인물>
카르멘(Carmen) : 담배공장에서 일하는 집시 여성(메조소프라노)
돈 호세(또는 동 조세, Don Jose) : 바스크 출신의 군인(테너)
에스카미요(Escamillo) : 호세의 연적이 되는 투우사(바리톤)
미카엘라(Micaela) : 호세의 고향마을 처녀(소프라노)
메르세데스, 프라스키타, 수니가, 모랄레스, 단카이로, 레멘다도 등

<감상 포인트>
* 관능적이고 매혹적인 여주인공
* 집시들의 춤, 투우장 풍경 등 풍부한 엔터테인멘트
* 익숙한 선율(하바네라, 세기디야, 투우사의 노래, 꽃노래...)과 화려하고 색채감 넘치는 관현악

* 음악적 특성: 민요와 춤곡을 적절히 배합
* 차별화 전략: 이탈리아 오페라의 도식적 인물관계 극복
* 조르주 비제(Georges Bizet, 1838-1875) : 성악교사인 아버지와 피아니스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나 9세에 파리 음악원 입학, 정식 음악교육 시작. 피아노 및 오르간 연주에 재능. 작곡 수업 초기에는 기악음악을 주로 작곡했으나 차츰 극음악에 관심을 보였다. 19세에 로마대상을 받아 3년 동안 오페라 창작에 몰두할 수 있는 조건을 확보했다.
대표작이자 마지막 작품인 오페라 <카르멘>을 작곡하기 전에 이미 14편의 오페라, 오페레타, 연극 부수음악 작곡. 이 가운데 이국적인 소재와 선율을 사용한 오페라 <진주잡이 Les pecheurs de perles>(1863), 알퐁스 도데의 소설을 연극으로 만든 <아를의 여인 L'Arlesienne> 부수음악(1872)이 특히 빼어난 걸작으로 알려져 있다.
1875년 3월 파리 오페라코미크의 <카르멘> 초연 후 3개월만에 심장발작으로 사망.

<감상곡과 영상물>
* 카르멘의 아리아 '하바네라', 'Pres des remparts de Seville'(세비야 성벽 너머)
* 돈 호세의 아리아 'La fleur que tu m'avais jetee'(당신이 던져준 이 꽃은)
(DVD) 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요나스 카우프만/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등, 안토니오 파파노 지휘, 런던 코벤트가든 로열오페라하우스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프란체스카 잠벨로 연출, 2006년 실황(한글자막)

3) 카미유 생상스, <삼손과 델릴라Samson et Dalila>

작곡 : 카미유 생상스(Camille Saint-Saens, 1835-1921)
대본 : 페르디낭 르메르
원작 : 구약성서 판관기(사사기) 13-16장
초연 : 1877년 바이마르 대공 오페라극장
배경 : 기원전 1150년경,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

<주요 등장인물>
삼손(Samson, 테너) : 히브리의 판관이자 전사
델릴라(Dalila, 메조소프라노) : 불레셋의 미녀
다곤(Dagon) 신전의 대제사장(베이스)
아비멜레크 장군(베이스) : 가자의 통치자
히브리 현자(베이스)

<감상 포인트>
* 카미유 생상스 : 세 살 반에 작곡을 시작한 천재. 칭찬이나 비판에 예민하게 반응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방식을 고수하는 작곡가였다. 86년의 생애를 통해 그의 침착함과 여유, 그리고 약간의 오만한 태도는 언제나 유지되었다. 작곡가, 시인, 화가, 천문학자, 식물학자이기도 했던 그는 세상에서 모르는 것이 없었다. 프랑스에서 사람들이 바그너를 욕하고 있을 때 그는 바이로이트로 성지순례를 떠날 정도로 바그너 음악을 예찬했다. 그러나 바그너의 음악이 온 유럽을 지배하게 되었을 때는 그 숭배를 거둬들였다. 생상스는 <동양 공주>, <은방울>, <헨리 8세> 등 오페라도 20여 편이나 작곡했지만, 현재까지 꾸준히 공연되는 작품은 <삼손과 달릴라>뿐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동물의 사육제>, <교향곡 3번 c단조(오르간 교향곡)> <첼로 협주곡> 등이 유명하다.

* 성서 속 삼손과 오페라 속 삼손 : 판관기(사사기) 13-16장에 삼손의 탄생에서 죽음까지의 과정이 기록되어 있다. 삼손(작은 태양, 한줄기 빛)은 이스라엘을 지배하는 불레셋(필리스틴)의 여인들에게 매혹당한다. 처음 결혼하려던 불레셋 처녀에게 배신을 당하고 1천 명 이상의 불레셋 사람들을 당나귀 턱뼈로 처 죽인 삼손은 그 뒤로도 가자의 매춘부를 찾아 드나들다가, 결국은 소렉 골짜기의 처녀 들릴라(델릴라, 달릴라)를 보고 사랑에 빠진다. 삼손은 20년 간 이스라엘의 지도자이자 재판관이었던 인물이지만, 인간적인 면에서는 거칠고 폭력적이며 조급한 사람으로 그려진다. 그러나 생상스의 오페라에서는 이스라엘을 20년 간 이끈 판관답게 노련하고 사색적인 인물로 그려진다.

* 팜 파탈(Femme fatale) 달릴라의 매력 : 루벤스, 렘브란트를 비롯해 많은 화가들이 달릴라가 삼손의 머리를 자르는 장면을 그림으로 남겼다. 음악적으로 삼손보다는 달릴라에게 주어지는 서정적인 멜로디의 아리아들이 관객의 인기를 끌며 오페라의 집중도를 높여준다. 특히 메조소프라노 여주인공의 풍성하고 깊이 있는 음색으로 금지된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관능적 분위기를 창조했다.

* 음악적 특성: 애초에 오라토리오로 기획했기 때문에 오페라보다는 음악극(Musikdrama)적인 성격이 강했고, 그것이 시대적으로(바그너의 오페라가 유럽을 지배하게 된 시대) 잘 맞아떨어졌다("생상스는 독일 한복판에서 프랑스 악파의 깃발을 휘날렸다"-Journal de Musique).

<감상곡과 영상물>

* 델릴라의 아리아'Mon coeur s'ouvre a ta voix'(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
* 필리스틴 사람들의 '바카날(Bacchanale : 디오니소스 제전)'

(DVD) 플라시도 도밍고, 올가 보로디나, 세르게이 라이페르쿠스 등, 제임스 레바인 지휘, 뉴욕 메트로폴리탄 극장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엘리야 모쉰스키 연출, 1998년 메트로폴리탄 극장 공연 실황(한글자막)

4) 쥘 마스네, 〈마농Manon〉

작곡 : 쥘 마스네(Jules Massenet, 1842-1912)

대본 : 앙리 메이야크(Henry Meilhac)/필립 질(Philipp Gille)
원작 : 프레보(Prevost, 1697-1763)의 소설 <마농 레스코Manon Lescaut>(1731)
초연 : 1884년 1월 19일 파리 오페라 코미크 극장
배경 : 1721년 프랑스 아미앵, 파리, 르 아브르 가도

<주요 등장인물>
마농(Manon. 소프라노) : 시골 처녀
데 그리외(Des Grieux. 테너) : 신학생
레스코(Lescaut. 바리톤) : 마농의 사촌오빠인 근위장교
데 그리외 백작(베이스) : 주인공 데 그리외의 아버지
기요 드 모르퐁텐(테너) : 귀족
드 브레티니(바리톤) : 귀족
여배우들, 여관주인, 군인들 등

<감상 포인트>
* 마스네의 <마농>과 푸치니의 <마농 레스코> 비교:
언어 : 프랑스어 / 이탈리아어
무대 : 아미앵, 파리의 아파트, 센 강가, 수도원, 도박장, 르 아브르 가도(5막본)
아미앵, 파리의 제롱트 저택, 르 아브르 가도, 뉴올리언즈의 황무지(4막본)
초연 : 1884년 파리 / 1893년 이탈리아
연주시간 : 약 2시간 50분 / 약 2시간
* 마농의 '향락중독증'

<감상곡과 영상물>
* 마농의 아리아 'Adieu, notre petit table'(안녕, 우리의 작은 테이블이여)
* 데 그리외의 아리아 'En fermant les yeux, je vois la-bas'(눈을 감으면)
* 마농과 데 그리외의 이중창 'N'est-ce plus ma main que cette main presse'(당신의 손을 잡는 내 손이)
(DVD) 안나 네트렙코, 롤란도 비야손, 알프레도 다차 등, 다니엘 바렌보임 지휘, 베를린 슈타츠카펠레 및 베를린 국립오페라 합창단, 뱅상 패터슨 연출, 2007년 베를린 국립오페라 공연 실황(한글자막)

2. 러시아 오페라: 전쟁과 혁명 또는 회한과 우울

1) 표트르 차이코프스키, <예브게니 오네긴Evgeny Onegin>

작곡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Pyotr Ilyich Tchaikovsky, 1840-1893)
대본 : 표트르 일리치 차이코프스키, 콘스탄틴 쉴로브스키
원작 : 알렉산드르 푸슈킨(Aleksandr Pushkin, 1799-1837)의 운문소설 <예브게니 오네긴>(1833)
초연 : 1879년 3월 17일 모스크바 말리 극장
배경 : 제정 러시아

<주요 등장인물>
오네긴(Onegin. 아녜긴. 바리톤) : 러시아 상류사회의 청년
타치아나(Tatiana. 따찌아나. 소프라노) : 지방의 지주인 라린 가의 딸
렌스키(Lenski. 테너) : 시인. 오네긴의 친구
올가(Olga. 메조소프라노) : 라린 가의 딸
그레민(Gremin. 베이스) : 상트페테르부르크의 공작. 퇴역장군
라리나(Larina. 메조소프라노) : 지주의 미망인
필리프예브나(Filippyevna. 메조소프라노) : 타티아나와 올가의 유모
자레츠키(Zaretski. 베이스) : 결투 감독관
트리케(Triquet. 테너) : 라린 가의 프랑스인 가정교사

<감상 포인트>

1) 푸슈킨 원작과 차이코프스키 오페라의 차이점 : 원작에서는 친척 아저씨를 간병하는 오네긴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된다. 오네긴에게 거절당한 뒤 타티아나는 떠나버린 오네긴의 집에 있는 책들을 읽고 그의 사고방식과 인간성을 이해하게 된다. 또 원작에는 긴 여행 중에 겪은 오네긴의 체험이 들어 있다.
2) <오네긴>을 대하는 작곡가의 태도 : 음악은 탁월하지만 연극적 효과의 면에서는 문제점이 많다는 세르게이 타네예프의 지적에 대해 차이코프스키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 내 오페라의 무대효과가 빈약하다는 지적은 옳을 것입니다. 하지만 나는 무대효과라는 것을 무시한다고 대답해야겠습니다." 처음부터 차이코프스키는 이 오페라에 '서정적 장면들'이라는 부제를 달았다. 사건의 발전에 따른 극적 긴장의 고조 따위는 애당초 차이코프스키의 관심사가 아니었다. 그는 베르디의 <아이다>나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 같은 스펙터클에 관심이 없었다. "나는 이집트 공주나 파라오의 감정 따위엔 관심이 없다..... 황제나 황후, 민중반란 같은 것도 (내 오페라에는)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그의 견해였다.
<감상곡과 영상물>
* 타치아나의 '편지 장면'
'Puskai pogibnu ya, no pryezhde'(이걸로 끝이라 해도, 황홀한 희망을 품고)

* 렌스키의 아리아
'Kuda, kuda, kuda vi udalilis'(어디로 가버렸나, 내 젊음의 찬란한 날들은)
* 그레민 공작의 아리아 'Lyubvi vsye vozrasti pokorni'(사랑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 법)
(DVD) 드미트리 흐보로스토프스키/르네 플레밍/라몬 바르가스 등, 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 메트로폴리탄 오페라 오케스트라와 합창단, 로버트 카슨 연출, 2007년 메트로폴리탄 오페라극장 실황(한글자막)

2) 알렉산드르 보로딘, 프린스 이고르(Knjas Igor)

작곡 : 알렉산드르 보로딘(Aleksandr Borodin, 1833-1887)
대본 : 알렉산드르 보로딘(중세 서사시의 11개 버전 참고)
원작 : 러시아 중세 서사시 <이고르의 노래Slowo o polku Igorewe>
초연 : 1890년 11월 4일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극장
배경 : 1185년 러시아 푸티블 및 폴로베츠 진영

<주요 등장인물>
이고르 스비야토슬리비치(Igor Sviatoslavich. 바리톤): 세베레스크의 영주
야로슬라브나(Yaroslavna. 소프라노): 이고르의 두 번째 아내
블라디미르 이고리에비치(Vladimir Igorievich. 테너): 이고르의 아들
갈리츠키 공작, 블라디미르 야로슬라비치(Galitsky, Vladimir Yaroslavich. 베이스): 야로슬라브나의 오빠
콘차크(Kontschak. 베이스): 폴로베츠의 칸
콘차코브나(Kontschakovna. 알토): 콘차크의 딸
오블루어(Ovlur. 테너): 러시아 정교의 세례를 받은 폴로베츠인
예로쉬카/스쿨라(Yeroshka/Skula): 구도크(Gudok) 연주자

<감상 포인트>
* 작곡가 보로딘: 러시아 국민음악파 5인조의 한 사람인 보로딘은 전문작곡가가 아니라 의학을 전공했고 상트페테르부르크 대학의 화학과 교수였다. 학자와 교육자로서 책임감 있는 삶을 꾸렸지만 작곡가의 길도 포기하지 못해, 장장 18년이라는 기간에 걸쳐 이 작품 <프린스 이고르>를 작곡했다. 그러나 죽을 때까지도 완성을 못했고, 동료작곡가 림스키코르사코프와 글라주노프가 함께 완성했다. 보로딘은 중세 러시아 서사문학에서 이 소재를 구해 대본도 스스로 썼다. 러시아 건국기인 12세기의 역사를 배경으로 한 웅장한 작품이다. 화학분야에서 국제적인 업적을 남긴 그는 러시아 여성운동에도 앞장섰다.
* 음악적 특성: 이국적이고 동양적인 선율과 교회음악 및 러시아 고유의 음악 스타일을 결합한 보로딘의 음악은 1880년 이후 유럽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무소르그스키를

극복하려는 그의 노력은 이 오페라 <프린스 이고르>의 대칭구조를 통해 잘 드러난다. 무소르그스키의 <보리스 고두노프>가 지나치게 주인공 1인에만 집중된 오페라여서 실패했다고 생각한 보로딘은 <프린스 이고르>에서 인물 관계의 대칭과 균형을 강조했다.
*폴로베츠인들의 춤: 유목민 '폴로베츠인들의 춤'은 이 오페라에서 가장 유명한 곡. 이 곡은 이국적 정취가 가득한 여성합창 '바람의 날개를 타고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자 노예들의 춤', '거친 남자들의 춤', '칸을 찬양하라' 등으로 구성된다.

<감상곡과 영상물>
* 폴로베츠인들의 합창과 춤 'Uletaj na kryl'jach vetra'(바람의 날개를 타고 고향으로 날아가라, 우리의 노래여)
(DVD) 니콜라이 푸틸린, 갈리나 고르차코바, 예브게니 아키모프, 올가 보로디나 등, 발레리 게르기예프 지휘, 상트페테르부르크 마린스키 키로프 오케스트라 및 합창단, 예브게니 소코브닌 연출, 1998년 실황

(음악평론가 이용숙 rosina@chol.com)

감상자료

1)<파우스트> 중 '정결한 집'-로베르토 알라냐
2) <파우스트> 중 '보석의 노래'-안젤라 게오르규
3) <파우스트> 중 '병사들의 합창'
4) <카르멘> 중 '하바네라'-안나 카테리나 안토나치
5) <카르멘> 중 '꽃노래'-요나스 카우프만
6)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일데브란도 다르칸젤로
7) <삼손과 델릴라> 중 '그대 음성에 내 마음 열리고'-셜리 버렛
8) <삼손과 델릴라> 중 '바카날'
9) <마농> 중 '눈을 감으면'-롤란도 비야손
10) <마농> 중 '가보트'-안나 네트렙코
11) <오네긴> 중 '편지의 아리아'-안나 사무이
12) <오네긴> 중 '어디로 가버렸나, 내 젊음의 찬란한 날들은'-요제프 카이저
13) <오네긴> 중 '3막 폴로네즈'-볼쇼이 극장
14) <프린스 이고르> 중 '폴로베츠인들의 춤'